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8월(제62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세계 각국의 올림픽 선수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 사전 합숙 오이타현



지난 7월 23일 개막한 2020 도쿄 올림픽은 지난 8일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세계 각국의 선수단이 사전 합숙 훈련을 위해 오이타현을 방문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현에는 포르투갈, 피지, 카메룬 등 9개국 출신 선수단이 방문했는데, 선수들은 일반 투숙객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매일 PCR 검사를 받고 숙소 건물 한 층 전체를 빌려 생활하는 등 특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포르투갈 선수단은 2021 전국 고등학교 종합 체육대회(통칭 '인터하이') 육상 경기에 출전할 현 대표 고등학생 12명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수단은 학생들의 평소 연습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언을 해 주었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조언을 새겨들으며 인터하이 출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등 의욕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선수단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교류를 계기로 앞으로도 새로운 교류가 이어져 나가기 바랍니다.



(사진) 선수단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

여기는 사랑스러운 키티가 살고 있는 히지입니다

산리오&헬로 키티 굿즈 소개 히지정

오이타현 중북부에 위치한 히지정(日出町)에는 산리오 캐릭터 테마파크 '하모니 랜드(ハモニーランド)'가 있습니다. 이에 히지정에서는 '헬로 키티와 함께 사는 마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산리오와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의 산리오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헬로 키티 x 히지정 스페셜 세트
'후루사토 납세(고향세)' 답례품으로 제공되며 구성품으로는 오리지널 보자기, 히지정 명물 과자 '가레이 사이추(かれい最中)' 등이 있습니다.



- 오리지널 마스크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성년의 날을 맞이한 청년 여러분께 축하 선물로 오리지널 마스크를 보내드렸습니다.



- 오리지널 디자인 맨홀 뚜껑
키티와 가자미(히지정 특산물)가 함께 바닷속을 헤엄치는 디자인으로, 히지정 중심부 도보 등 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레이 신문(かれい新聞)
산리오 캐릭터가 히지정의 특산물과 관광지를 소개하는 타블로이드 정보지로, 히지정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8월(제62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맑은 물 흐르는 숲 속에서 바움쿠헨을 굽다 豊後大野市
 **롯데 기요카와 & 바움쿠헨** 분고오노시

오이타현 남부에 위치한 분고오노시(豊後大野市). 이곳은 '온천현 오이타' 현 내의 지역이지만 온천이 없는데, 대신 풍부한 자원, 깨끗한 공기,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사우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우나'라고 하면 주로 목욕탕에서 샤워 후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축축한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것이다. 뜨거운 땀을 흘리며 몸의 피로를 푸는 것이 사우나의 큰 매력임에는 분명하지만, 밀폐된 공간의 수증기가 답답해서 사우나를 즐기지 못하는 분도 꽤 계시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곳 분고오노의 사우나는 건식 사우나(핀란드 전통 방식) 텐트를 '야외'에 설치하여 답답하지 않아 습식 사우나가 힘든 분에게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온천 시설이나 목욕탕 내부가 아닌 맑은 강, 종유석 동굴 근처에 설치된 사우나 텐트 안에서 충분히 땀을 뺀 후, 바로 옆에 흐르는 시원한 강과 종유석 동굴 속 냉탕에서 풍덩 하고 몸을 식히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사우나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텐트 안에는 4~10명이 들어갈 수 있으며, 텐트 내부에 있는 달구어진 돌에 물을 뿌리며 직접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중에서도 에메랄드빛의 '오쿠다케가와(奥岳川)'가 흐르는 강가에서 야외 사우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분고오노 시청 소재지 미에마치(三重町)역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오늘의 장소, '롯데 기요카와(ロッジきよかわ)'이다.

몇 년 전, 분고오노의 매력을 알리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고오노 시내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곳에는 계절에 따라 한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캠핑 시설 등은 있었으나 일반 숙박 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캠핑장을 개조하여 1년 내내 관광객이 방문해도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었는데, 30년 된 캠핑장에 새로이 여러 타입의 숙박시설을 짓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갖추어 2015년 7월 리뉴얼 오픈한 곳이 바로 이곳, '롯데 기요카와'이다.

롯데 기요카와의 목적은 분고오노의 매력을 알리는 것으로 텐트 사우나, 팩크래프팅(래프팅 스포츠의 일종), 사토야마(里山) 하이킹, 낚시 등의 액티비티도 마련돼있다. 특히 이곳의 텐트 사우나는 사우나의 고향 핀란드제 사우나 텐트를 사용하고 오쿠다케가와(奥岳川) 강가에 설치되어 있어, 텐트 안에서 사우나를 마친 후 시원하고 맑은 강에 들어가 물아일체의 기분으로 몸을 식힐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곳에서 자라는 매실나무의 열매로 직접 만든 매실장아찌(梅干し)를 사우나 후에 먹어 염분을 섭취한다는 점이다. 땀을 흘린 후에 이온 음료나 스포츠 드링크를 먹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매실장아찌로 염분을 섭취한다니,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색다르지만 일본 고유의 문화를 즐기기에 좋을 듯했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8월(제62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이 중, 이번에 호주 교류원과 내가 체험한 액티비티는 ‘바움쿠헨(나이테빵) 만들기’였다. 오쿠다케가와가 보이는 자연 속에서 분고오노산 밀가루와 숯을 사용한 바움쿠헨을 한 겹 한 겹 구워내면서 오랜만에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바움쿠헨 체험은 롯지 기요카와 스태프 알렉스 씨와 함께 진행된다. 예약한 체험 시간에 맞추어 시설에 도착하면 반죽과 대나무, 숯불 등 체험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알루미늄 호일이 감싸진 기다란 대나무 봉에 빵 반죽을 한 국자 떠서 끼얹은 후 숯불에 대나무를 걸쳐 굽는다. 대나무는 손으로 직접 돌려야 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작은 팁을 주자면, 어느 정도 구워지기까지 반죽이 꽤 흘러내리기에 조금 빠르게 돌리고, 윤기가 사라지고 구워졌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돌리며 색을 내면 좋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한 겹을 만들고 다시 반죽을 끼얹고, 돌려가며 구워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지름 10cm의 바움쿠헨이 완성된다. 알렉스 씨는 중간중간에 불씨의 상태와 바움쿠헨을 확인하며 ‘좋아요(いい感じ!)’를 연신 외쳐주고, 바움쿠헨이 완성되면 직접 커팅해준 후 곁들일 만한 간단한 마실 것(우유, 커피 등)과 생크림을 제공해준다. 선선한 강바람과 작게 들리는 새소리, 조용히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며 갓 구워 걸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바움쿠헨 한 조각을 떠 넣으면 입이 짹 차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나도 아주 오랜만에 자연을 찾았는데, 최근에 받은 많은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바람과 함

께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바쁜 매일이지만 계절을 느끼고 자연을 만끽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푸르른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잠시 여유를 즐겨보면 어떨까.



롯지 기요카와
(ロッジきよかわ, Lodge Kiyokawa)

- 주소 : 豊後大野市清水町宇田枝158(〒879-6911)
- 문의전화 : 0974-35-3601(일본어, 영어 대응)

● 바움쿠헨 체험

- 체험 시간 : 약 1시간 30분 ~ 2시간 소요
- 체험 가능 시간 : 10:00 ~ 15:00
- 체험 비용 : 그룹 당 6,000엔
- ※ 최소 신청 인원 2명 / 최대 신청 인원 6명
- 최소 일주일 전 체험 예약 필요

(사이트 <https://teppan-oita.jp/tour/sumiyakibaumkuchen/>)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iota.jp)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8월(제62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7화

<특집> 노지는 어찌다
일본어를 배우게됐나 ②



말을 건 사람은
마트 앞에서 학습지를 홍보중이던 한 직원.



갑자기 엄마는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를
배워보라며 학습지를 등록했고



그 길로 난 일본어공부를 하게됐다 (20일).

눈이 일본어 학습지



내 의지와 도 상관없이 시작한 일본어지만
나름 열심히 히라가나 단어를 외우던 무렵,



이듬해 설날에 간 할머니댁에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진짜 주인공인



한일 혼혈 사촌동생 S를 만나게 된다.

(계속)



여
설날에
다같이 모인
노씨 일가친척